

전남대 연구진 ‘암 면역치료 패러다임’ 제시

박인규·이창문 교수팀, 리뷰 논문 발표
다당류 고분자 면역조절 플랫폼 재해석
시공간 제어 가능 정상조직 손상 최소화



박인규 이창문

전남대 연구진이 암 치료를 ‘제거’에서 ‘면역 기반 제어’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13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고교 박인규 교수팀과 헬스케어메디컬공학학부 이창문 교수팀이 다당류 고분자 기반 광면역치료 전략을 집대성한 리뷰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리뷰 논문은 탄수화물 고분자 기반 바이오소재가 빛에 반응해 종양을 정밀하게 공격하

고, 동시에 항암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다당류 고분자를 단순 치료 소재가 아닌 정밀 전달체이자 능동적 면역조절 플랫폼으로 재해석해 주목받고 있다. 키토산, 히알루론산, 알긴산 등 생체 적합성이 높은 고분자들이 광역·광역학 나노구조와 결합할 경우 종양 부위에서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치료 시스템’으로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존 항암치료의 전신 독성, 낮은

선택성, 치료 지속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연구팀이 주목한 또 하나의 축은 ‘빛’과 ‘면역’의 정밀 결합으로, 다당류 고분자 기반 광면역 플랫폼은 레이저 조사 시 종양 조직에서만 활성화되며 면역원성 세포사멸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수지상세포와 T세포가 활성화되고, 중앙 미세환경이 항암 친화적으로 재편되면서 원발암뿐 아니라 재발과 전이 억제까지 가능한 전신 면역 반응과 면역 기억 형성 가능성이 제시됐다. 또한 다당류 고분자 기반 플랫폼은 생분해성, 저독성, 표면개질 용이성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치료를 원하는 시간과 위치에서만 작동시키는 시공간적 제어(spatiotemporal control)가 가

능해 치료 효율을 높이면서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정밀도 및 차세대 암면역치료의 핵심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팀은 이번 리뷰를 통해 해당 기술이 개념적 수준을 넘어 임상 전환을 고려한 유망 치료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중앙 표적화, 심부 조직에서의 광 투과 한계, 임상 적용 과정의 과제도 함께 제시하며 실현 가능한 실제 치료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바이오소재, 나노기술, 광치료, 면역치료를 아우르는 융합 연구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정밀 암 치료 분야에서 국내 연구진의 위상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김공 광주대 특임교수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 임명



김공(사진) 광주대 특임교수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하 공단)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2월 말 공식 임명돼 비상임이사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인사는 김 교수가 그동안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체육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현재 광주대 특임교수와 언론사 사매거진의 사장을 맡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동신대 교수를 역임한 그는 ‘김공의 정치칼럼’을 통해 날카로운 시사 분석을 내놓는 칼럼니스트로도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체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광주시 사이클연맹 회장과 장애인배구협회 이사를 맡아 엘리트 체육과 장애인 체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한국자유총연맹 이사로서 사회 통합과 공익 증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희중기자



광주시 노인자원봉사단 ‘자원안보 위기 극복 캠페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 노인자원봉사단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시내 지하철역 등 교통 요충지에서 중동 정세로 인한 국가적인 자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어르신들은 민간차량 승용차 5부제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중교통 이용, 실내 적정온도 준수 등 국민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원하고 대한노인회중앙회와 대한노인회광주광역시연합회 및 구별 지회가

수행기관이 돼 시행하고 있는 2026년도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내 어르신들이다. 정광영 광주시연합회장은 “어르신들의 캠페인 활동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며 “노인자원봉사단 가족부터 국민행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광주시 노인자원봉사단은 115개로 2천 명이 주거환경 보호 및 생활편의 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 및 문화예술 재능나눔 등의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 /변은진기자



MG양동새마을금고, 서구청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전달

MG양동새마을금고는 “최근 광주 서구청 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 장애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김이강 서구청장과 김대준 MG양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나종만 광주시 장애인재활협회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다했다. 후원금은 4월 한 달간 진행되는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 사업비로 전액 사용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15일 운전저수지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20일 서구청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이다. 신미숙 관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가 함께한 의미 있는 나눔”이라며 “후원금은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 운영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진기자



광주시, 공직자 대상 집중안전점검 홍보 캠페인

광주시는 13일 시청 1층 출입구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오는 20일부터 6월19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이 먼저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집중안전점검’은 노후·위험시설 501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출근길 공직자에게 가정용·다중이용시설용 자율안전점검표와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각 가정과 근무지에서 선제적 안전점검 참여를 독려했다. 또 ‘안전점검이 사고 예방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생활 속 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광주대 무역유통학과 ‘기업가정신 연계 현장실습’

광주대학교는 “최근 무역유통경영학과 교수진 5명과 재학생 52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가정신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공 이론과 실무를 연계하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취보해양조 ▲농협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장성 청백한옥마을 등을 방문해 제조·유통·관광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특히 취보해양조에서는 전통 식품 제조 공정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며 식품 산업

의 경쟁력 요소를 체험했으며, 농협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서는 농산물 유통 구조와 물류 시스템 운영 실무를 학습했다. 장성 청백한옥마을에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사례를 체험하며 지역경제와 연계된 산업 모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중 무역유통학과장은 “이번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제조, 유통, 관광 등 다양한 산업군을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 모델로 학생들의 전공 역량과 실무 이해도를 동시에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심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광주 북부경찰, ‘집회보호구역’ 안내표지판 도입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집회·시위 현장에서 참가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회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표지판은 인도와 도로 노면 등에 설치돼 집회 참가자 활동 공간과 일반 시민의 통행로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최근 집회·시위 대응 방식이 기존의 사전 통제 중심에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물리적 차단 대신 시각적 안내를 통해 집회 현장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



를 관리하고 경찰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집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현장 적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찬웅기자

적십자 광주전남·전북지사-서해해경청 업무협약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 안전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섬과 연안이 밀집해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서남해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재난 대응 및 구조 체계 구축 ▲해양사고 생존자·유가족 및 현장 대응 인력 심리회복 지원 ▲응급처치 역량 강화 ▲해양안전



문화 확산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및 헌혈 운동 등 5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연상기자



조산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조산대학교는 “최근 의과대학 간호학과가 교내 한마음홀에서 ‘제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앞서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식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행사다. 이번 선서식에는 간호학과 3학년 80명이 참여해 촛불의식과 선서를 통해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문소현 간호학과장은 “이번 선서식을 계기로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과 따뜻한 돌봄의 가치를 되새기고, 참된 간호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간호학과 3학년 대표 송민지 학생은 “오늘의 다짐을 잊지 않고 대상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따뜻한 간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광주 북부소방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수상

광주 북부소방서는 13일 “지난 10일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학생·청소년부와 대학·일반부가 모두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학생·청소년부 6개팀과 대학·일반부 5개팀 등 총 11개팀이 참가해 심정지 상황을 가장한 대응 과정을 8분 이내로 발표했다. 평가는 무대 표현력과 심폐소생술 정확도, 장비 활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북부소방서 대표로 출전한 학생·청소년부(용봉중학교)와 대학·일반부(밀양이집)는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구성과 정확한 심폐소생술 수행으로 각각 학생부와 일반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특히 밀양이집은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로, 이번 대회를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조현환 북부소방서장은 “참가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찬웅기자